

## 초공본풀이

초공본풀이를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옛날이라 옛적에. 계난 초공 임전국 상시당 허난. 임전국 허고, 천하(天下) 임전국, 지하(地下) 짐전국 낙신땅에 부베간이 살았인다.

애기가 엇인 거라. 아무리 잘 살앙. 강나록<sup>1)</sup>도 좋아지고, 초나록<sup>2)</sup> 밧도 남전 북답(南田北답) 너른 전지도 좋고,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을 허영, 기는 종, 낙는 종, 종덜 데령 살아도 자식이 엇언.

허를은

‘에, 경 말앙. 흥번 저 산천(山川)에 강나록도 밧, 초나록 밧이나 돌아방 오저.’

허연. 이제 물을 턱허게 탄. 아이, 강나록 밧, 초나록 밧은 들안 보젠 가단 보난, 말 므른 길중싱<sup>3)</sup>들이 오조조조 앗안 다 까먹었어, 그걸. 계난

“주어 저 새!”

허연 썰 다올린 게<sup>4)</sup>. 그 새들이 놀아가멍, 아방 본 새는 아방 콤데레<sup>5)</sup> 들어가고, 어멍 본 새는 어멍 콤데레 들어가고. 계난 그걸 보난

‘아, 이거 말 므른 길짐승도 새끼 켜왕, 어멍 강골 아방 강골 허건만은. 날 ㄱ뜰<sup>6)</sup> 팔즈가 어디시리.’

허연. 이젠. 물 타 앗언 오단 보난, 삼천선비덜이 앗안 두어 바둑 두어 장길 몹이난. 그디 간

“나도 흥번<sup>7)</sup> 바둑 두는 게 어찌 호리파?”

허난.

“어서 경 협셴.”

허연. 천하임전국 대감이 두어 바둑 두어 장기를 둔 게, 삼천선비덜 돈을 문 딱<sup>8)</sup> 따 분 거라. 겐 그 돈을 다 따난. 일어산 오젠 헤 가난. 삼천선비덜 허는 말이,

“임전국 대감님아, 그 돈을 앗앙 가민 어느 누게 우는 애기가 잇영 주쿠과? 경 말앙. 우리 삼천선비덜 흥 입씩 다 갈라줘동 가는 게 어떻 호리파?”

그 말 끝에는 대답할 말이 엇어. 기냥 그 돈 다 갈라줘 뵈. 이젠 돌아산 집

---

1) 강나록: 발벼.

2) 초나록: 찰벼.

3) 길중싱: 길짐승.

4) 다올린 게: 멀리 가도록 내몰거나 내쫓다.

5) 콤데레: 품으로.

6) 날 ㄱ뜰: 나 같은.

7) 흥번: 한번.

8) 문딱: 전부. 모두.

더레 고개 폭 속연. 힘이 다 빠진 거주게. 경 험 오노렌 허난. 비주리 초막<sup>9)</sup>에서 막, 황천대소(仰天大笑) 웃음 소리가 막 나.

‘아이, 이 집인 어떻 허난. 무신 일이 좋안 영 웃없인곤.’

허연. 담 고망으로 영 눈을 쏘안 브려보난, 애기 하나 놓안. 애기가 풀풀풀풀 기영 어멍신데레 기어가민 막 웃고, 또 기영 아방신데레 가문 막 웃고, 계명<sup>10)</sup> 애기 하날 놓안 막 웃는 거라. 그때서야 애기 없는 한탄을 헨 거라.

“하이고, 날 만 못한 얻어먹는 게와시(乞人)도 애기를 낳안 저렇게 웃음을 웃으멍 살암건만은, 나 팔즈는 무슨 팔즈고.”

허연. 집으로 돌아완 이젠 상깃지동<sup>11)</sup> 앞이 앓안, 삼백도리 진서냥갓<sup>12)</sup> 벗안 놓아두고 앓은 게 비세(悲鳥)굴이 울어가난. 짐전국 부인이

“아이고, 어떻 허난 경 울없수파?”

허난.

“경 험게 아니고, 우리만 못한 길짐승도 새끼 깨왕<sup>13)</sup> 어멍 강골 아방 강골 허고, 얻어먹는 게와시(乞人)도 애길 난 웃음들을 웃영 살건 만은, 우리 둘이 부베간<sup>14)</sup> 팔즈는 뭇 놈에 팔즈라서 우리가 애기도 하나 엇인고.”

허연 허단. 짐전국 부인이 나상 허는 말이

“아이고, 대감님아, 경 허지말앙 잇입서. 나가 웃음 웃을 일을 허쿠다.”

뭇 허젠 험인고 보난<sup>15)</sup>, 간 은단펑(銀唐瓶)에 서단마게<sup>16)</sup>를 막고, 촘실 험 질 졸라 메연<sup>17)</sup> 미달이 안으로 꺼낸 거라, 그거를. 꺼내언 각장장판에 놓안, 이레 동굴력 저레 동굴력 헤박도 웃음이 안 나와. 그거 동굴려도. 게난 부베간 이 한탄을 허영, 상깃지동 앞이 앓안 막 한탄하노렌 허난. 시군문 베깃디서<sup>18)</sup>, 올레로 스님이 들어온 거라. 겐. 스님은 누겐곤 허민, 황금산(黃金山) 도단땅에 절이 잇는데, 도단땅 추접절이 잇는데, 추접 선생이라. 겐 스님이 들어완. 짓알로<sup>19)</sup>

“소승 절이 웹네다.”

허난

9) 비주리 초막: 아주 작은 초막.

10) 계명: 그렇게 하면서.

11) 상깃지동: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둥. 제주어로 ‘생깃지동’이라고 함

12) 삼백도리 진서냥갓: 갓의 테두리인 양태를 짜는데 대를 아주 가늘게 하여 3백 회선(回線)으로 정교하게 잔 좋은 갓.

13) 새끼 깨왕: 새끼를 까서.

14) 부베간: 부부간에.

15) 험인고 보난: 하는가 보니.

16)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17) 졸라 메연: 짧게 묶어서.

18) 베깃디서: 밖에서.

19) 짓알로: 아래로.

“어느 절에서 옵데가?”

그땐 스님 대답하기를

“예. 나는 동계남(東觀音)은 상저절, 서계남(西觀音)은 금법당(金法堂) 황금산(黃金山)은 추접절에서 오랏습네다.”

허난.

“어떻허연 오십데가?”

허난.

“내가 오기는 우리 당도 헐어지고, 우리 절도 헐어지난. 인간에 내려상 시권 제를 받아다가 헐 당도 수리허고, 헐 절도 수리허고, 인간에 명 없는 자엔 명도 주고, 복 없는 자엔 복도 주고, 생불환싱(生佛還生) 없는 자는, 자손은 생불환싱 취급을 시겨줄까 해서 권제를 받으레 내럿습네다.”

허난. 이제 가지깁이<sup>20</sup>)에 쓸을 떠단,

“높이 들렁 비웁서. 이거 헐 방울이 떨어지민 명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집네다.”

허연. 전대(纏帶)더레 스크르허게 비원.

“추접 선생님아,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 볍서. 오용팔괘(五行八卦)을 헐번 짚어 볍서.”

계난. 딱 짚으단 허는 말이,

“어떻 허난 당신님넨 고대광실(高臺廣室) 들 높은 집도 있고, 남전북답(南田北沓)너른 전지도 좋고, 느진덕 정하님을 거느런 살았우다만은. 어떻허난 부베간에 아기가 엇엉 호호탄복을 허엿수까?”

허난.

“경 허민 우리 부베간에 얘기가 잇이쿠과? 엇이쿠과?”

허난에. 영 단수육갑 짚어받. 엇이렌 헐 팔존 아니우다.

“게믄 어떻 허믄 우리덜 얘기를, 포테(胞胎)를 줍네까?”

허난에

“경 말앙. 우리 법당에양 출령을 읍서. 잘 출리나, 못 출리나 그것은 당신네 성의난, 출령 완 수록이나 드러볶서. 수록 들이민 허다 못허민 톨조식이라도 남직허우다.”

허난. 게믄 스님은 권제 받안 올라가불고. 그날부턴 부지런히 느진덕 정하님 들한테 다 곁안. 강나룩<sup>21</sup>)도 비어 오라. 초나룩<sup>22</sup>)도 비어 오라. 비어단 흘탄<sup>23</sup>)

20) 가지깁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21) 강나룩: 밭벼의 일종, 거친 땅에서도 경작이 되는 밭벼.

22) 초나룩: 찰벼.

23) 흘탄: 훑어서.

태작허연 장만 허난, 제일 우이로, 이제 그거 불공허레 갈 쏘이난, 제일 우이로 고장썰<sup>24)</sup> 거련. 감은 암썰<sup>25)</sup>에 상백미도 일천 석, 중백미도 일천 석, 하백미도 일천 석, 송낙베<sup>26)</sup>도 구만장, 장삼베도 구만장. 일천 석이엔 헤도 그 일천 석 못 시끄주<sup>27)</sup> 옛날 얘기난 영 곤는 거주. 경 헨. 그걸 다 시경<sup>28)</sup> 절에 올라 간. 이젠 상탕에 간 메 짓고, 중탕에 간 몸모욕허고, 하탕에 간 수족 식언. 그날부턴 불공을 들어간 거라. 불공을 들어간, 석 덜 열흘 백일 동안 불공을 허난, 이제 마지막 불공이 끝나는 날은 대추낭<sup>29)</sup> 은저울로 출령간 걸 딱 저울리난. 정성이 부족허연, 혼 근이 부족허연 백 근 근량(斤量)이 못 찬 거라. 계난 추접 선성님 허는 말이,

“당신님네, 이거 정성을 드러서 허영 왓이면 백 근 근량이 창 아덜을 날걸. 정성이 부족허연, 혼 근이 부족허연 백 근이 못 찻우다. 계난<sup>30)</sup> 툐이라도 취급(處給) 시겨<sup>31)</sup> 줌직 허난, 가당, 내려가당 을로 요만이 가당보민 꿈산이 잇이난 그디 강양 몽중(夢中)성에 꿈이나 꿩 갑서.”

“우리 팔쥬엔 툐도 좋수덴.”

경 헨 부베간이<sup>32)</sup> 법당을 하직 허연 이젠 내려오는 거 아니. 경 헨 오단 보난 꿈산이 잇인 거라. 계난 잠깐 그 디 부베간이 앓은 게 즘을 든 거라. 꿈에, 임전국 대감님 꿈에는 물 아래<sup>33)</sup> 옥돌 ㄱ뜰<sup>34)</sup> 애기씨, 가마귀 젓늘게<sup>35)</sup> ㄱ뜰 애기씨가 아버지신디 풀풀풀풀 기어오란에 아버지 통설대도 문직어<sup>36)</sup> 뷔곡, 짐전국 부인님 꿈에는 가마귀 젓늘게 ㄱ뜰 애기씨가 어명신디레 풀풀 기어완 어명 젓가심도<sup>37)</sup> 헤싸보고<sup>38)</sup>, 젓 먹젠.

둘이가 퍼쩍허게 깨난 보난 몽중(夢中)성 꿈인디 같은 꿈이라. 계난 집으로 내려완. 조은 날 합궁일을 잡안 부베간이 천상베필을 무엇더니만 그날부떠 포테(胞胎)가 뵈<sup>39)</sup> 빌고, 어명 몸에 슬<sup>40)</sup> 엇고 석 덜 열흘 백

24) 고장썰: 가장 품질이 좋고 깨끗한 백미

25) 감은 암썰: 검은 암소.

26) 송낙베: 고깔을 만드는 천감인 베 .

27) 시끄주: 짐 따위를 옮길 것에 차례로 얹어 놓다. 실지.

28) 시경: 실어서.

29) 대추낭: 대추나무.

30) 계난: 그러니까.

31) 취급 시겨: 날게 하여.

32) 부베간이: 부부가.

33) 물 아래: 물 아래.

34) ㄱ뜰: 같은.

35) 젓늘게: 앞날개.

36) 문직어: 만져.

37) 젓가심: 가슴.

38) 헤싸 뷔고: 풀어 헤쳐 보고.

39) 뵈: 뵈.

40) 슬: 살.

일이 넘언 아홉열 덜 준삭(準朔) 채완 애긴 나난. 이름을 짓젠 허난 애긴 곧  
털어지고,

“느진덕정하님아, 지금 이거 때가 어느 때고?”

허난에,

“아이고, 지금양, 구시 월 단풍 들언양, 녹하가 지엿우다.”

계난 우리가 조청(自請)허연에, 절에 간 조청(自請)허연 난 애기씨면 녹하지  
언 단풍들엿덴 허연 녹하단풍조치명왕애기씨로 이름을 지은거라. 아이, 계난  
이 애기씨 귀허연 불면 놀아나카<sup>41)</sup> 쥬민 까질건가, 여름이 됬민 상다락에서  
애길 노념허고<sup>42)</sup>, 봄광 가을이 됬민 중다락에서 노념을 허고, 겨울은 됬민 하  
다락에서 노념을 허고, 경 헨 이 애길 노념을 허는디 훈 솔 두 솔 열다섯, 십  
오세가 됬어가난. 천하임전국 대감님이랑 천하공소(天下公事)를 살레 읍서. 지  
하 짐전국 부인님이랑 지하공소(地下公事)를 살레 읍서 허연. 편지가 온거라.  
겐 옛날은 강 베슬<sup>43)</sup>을 살아오민 멧 년을 7만히 앓아서 먹고, 입고, 쓸 그계  
다 나왕 허난. 베슬 살레가젠 허난, 아고 이 애긴 어떻허민 좋코. 이걸 어떻  
놓아똥 가코. 아덜로 나시민 책실(冊室)로나 들양 거주만은 톨로 나부난 책실  
로도 못 들양가고, 느진덕 정하님을 불러다 낀 허는 말이,

“우리 애기씨, 궁 안네서, 문 안네서 가두왕 궁 안네서 밥을 주고 옷을 쥬  
키얏이민<sup>44)</sup>, 느 잘 키얏이민 우리 강 오랑 느 살을 도리를 해주켄.”

거난

“어서 경 험셴.”

허연. 이젠 가젠 허난, 아버지가 중근<sup>45)</sup> 문은 어머니가 수리두고, 어머니가  
중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를 두뉘.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sup>46)</sup> 문을 헤연. 계난  
말하자면 아버지가 중근 문 열췌<sup>47)</sup> 주계, 아버지가 중근 문 열췌는 어머니가  
갖고, 어머니가 중근 문 열췌는 아버지가 갖고 경 헨 애기를 궁 안네에 들여놔  
문을 탁 채와뉘 베슬 살레 가분거 아니. 경 헨 가부난, 하루 이틀 사는 게,

흐를날은 추접 절에서 스님들이 다 모연. 아멩해도<sup>48)</sup> 절이 큰 절인 생인 7라  
스님들이, 각 처도에서 스님들이 모여 앓안 하늘 우터레<sup>49)</sup> 브리난<sup>50)</sup> 들(月)이

41) 놀아나카: 날아갈까.

42) 노념허고: 놀이하고.

43) 베슬: 벼슬.

44) 키얏이민: 키우고 있으면.

45) 중근: 잡근.

46)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 살장의 종류.

47) 열췌: 열쇠.

48) 아멩해도: 아무래도.

49) 우터레: 위에.

50) 브리난: 보니.

떠서 계난

“어떠가라 저 들은 곱긴 곱다만은 계수나무나 박혔저. 침 곱기도 곱다.”

허난. 그때엔 추접 선성님 허는 말이,

“저 들은 곱긴 고운 가운데 계수나무 박혔건만은, 우리 법당에 오랑 수록드런 낱은 인간에 녹하단풍즈치명왕애기씨만큼은 못 곱덴.”

경 허난. 아이고, 저 들보다 더 고운 애기씨가 어덧이리엔, 스몛<sup>51)</sup> 스님들이 다 환호를 허는 거라. 경 허민 그 애기씨안테 강 본메<sup>52)</sup>를 뒤두엿 오렌. 계난 추접선성이 나사명

“나가 갖다 오겠습네다.”

허연. 이젠 흰 침 질러 굴송낙<sup>53)</sup> 둘러쓰고, 두 침 질러 비랑장삼(備郎長衫), 목에는 백파염줄(百八念珠), 손에는 단줄(短珠) 메연. 이제랑 금주랑 철죽대 만 주랑 철죽대 들르고, 석 자 호롬줍치<sup>54)</sup> 어깨에 탁 두러매연 금바랑 옥바랑 들르고 허연 내려산거 아니. 먼 올레로 들어사명, “짓알로<sup>55)</sup> 소승 절이 웹네다.”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나상

“어디서 옵데가?”

허난.

“난, 이디 녹하단풍즈치명왕애기씨 수록드런 난 절에서, 추접 절에서 오고 렌.”

허난

“어떻 허난 옵데가?”

“내가 온 거는 이디 애기씨가 명과 복이 쫄르난, 명과 복을 잇으레 권제를 받으레 오랏습네다.”

허난

“아이고, 이디 큰상전님네영, 안상전님네영, 문딱<sup>56)</sup> 베슬 살레 가명<sup>57)</sup> 아버지가 증근 문은 어머니가 수리두고, 어머니가 증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두언, 경 헨 가부난, 애기씨는 궁 안네 잇어부난 권제를 못 안넵니다.”

경 허난.

“나가 안네쿠다.”

허난

---

51) 스몛: 사몛.

52) 본메: 증거물이 될 만한 사물.

53) 굴송낙: 창호지로 만들어 쓰는 고깔.

54) 호롬줍치: 종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쌀을 넣어서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

55) 짓알로: 아래로.

56) 문딱: 전부. 모두.

57) 베슬 살레 가명: 벼슬 살러 가면서

“느진덕정하님 손으로 훈 말 주는거꽉, 애기씨 손으로 훈 흡 주는 걸 맞서질 못합니덴.”

“겐 문 증근 걸 어떻합네까?”

허난. 경 허민 애기씨안티 강 들어봡 오렌 허는 거라.

“무시거옌 들어 봅네까?”

허난

“강 증근<sup>58)</sup> 문을 내가 올라<sup>59)</sup> 주크메, 베깃디 나왕<sup>60)</sup> 권제를 줄 티옌<sup>61)</sup> 강 들어 보렌.”

게난. 느진덕 정하님은 상전님안티 간

“애기씨 상전님아, 저디양, 영영헌 추접 선생이 절에서 시권제를 받으레 왔 인디, 문 증근 거 올라 주민 권젤 내보넬텐 강 들어봡 오렌 했수다.”

허난

“게민, 경 허렌. 게문, 나, 증근 문 올라주민 나가 권젤 내보내켤”

게난 이젠. 그때옌. 천양낙화금정옥술발<sup>62)</sup> 들러 발안, 그 스님이 이젠 증근 증근 들어산. 훈 번을 둘러치난 천지가 요동허고, 두 번을 둘러치난 지에<sup>63)</sup>가 요동허옌. 이젠 일흔으덱 빗골장<sup>64)</sup> 문이 절로 싱강허게<sup>65)</sup> 문이 올라진거라. 게 난 애기썬 나온 거 보난, 하늘이 불 건가 청너울을 둘러 쓰고, 땅이 불 건가, 게난 얼굴 뻘지 말젠. 땅이 불 건가, 지하님이 불 건가 흑너울을 둘러 썬. 권 제 가지깁이<sup>66)</sup>에 쓸 들런 증근증근 베깃더레<sup>67)</sup> 훈 발자국 두 발자국 나오난 꿀려 앓안. 스님은 전대(纏帶)를, 권제 받는 전대를 훈착 귀는 입에 물고, 훈착 손은 엇영, 입에 문 거라. 손으로 영 허질 안허영, 입에 무난,

“어떻 허난. 스님아, 손 훈착은 어디 갓습네까?”

허난에, 하늘옥황에 단수육값 짚으레 갓덴. 손 훈착은 곱져불어난 거주게. 곱 전, 장삼 쏘곶에 곱젓단에

“거난, 훈 방울도 떨어지지 안허게 이걸 스르르 스르르 비웁서.”

허난. 스르르 스르르 비우는다. 비우단 입에 물엇던 전뎃길 잘락허게<sup>68)</sup> 내분 거라. 게난 알더레 그 쓸 다 쏟아진 거 아니. 게난 은제 늦제를 주멍 이걸로

58) 증근: 잠근.

59) 올라: 열아.

60) 나왕: 나와서.

61) 줄 티옌: 줄 것인지.

62) 천양낙화금정옥술발: 요령을 일컫는 말.

63) 지에: 지하.

64) 빗골장: 살장의 종류.

65)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어지거나 닫히는 소리.

66) 가지깁이: 늦사발의 두껍.

67) 베깃더레: 밖에.

68) 잘락허게: 무거운 것이 아래로 힘없이 쓰러지거나, 늘어져 처지다.

다 좇으렌 이걸. 헌 방울도 떨어지지 안허게, 이거 떨어지민 상전님 명과 복이 떨어지는 거우덴. 거난 이걸 다 좇으셧 허난. 걸 줍젠 굽엿 줍노렌허난, 아이, 헌착 손<sup>69)</sup> 옥황에 단수육갑(單數六甲) 짚으레 갖덴 헌 손이 뜬금엇이<sup>70)</sup> 나오란 애기씨 상가메 머리를 세 번을 솔솔허게 썰어분거라. 애기썸 그거 좇으멍 춤막춤막<sup>71)</sup> 놀렌거주게 거 손 나오란 머리 썰어가난. 게난 춤막춤막 놀레멍

“아, 이 중 저 중 귀썸헌 중이여. 양반칩이 못 덩길 놔으 스서로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나민 큰일이 날 중이엔.”

막 욱을 헌거라. 애기씨가. 게난 스님 허는 말이,

“아이고, 지금은 나신디 경 욱했우다만은, 셋 덜 열흘 백 일만 잇어봅서. 날 생각이 남네다.”

경 곱아될<sup>72)</sup> 나가젠 헤가난. 아기씨가,

“야, 느진덕정하님아, 저 강 추접 선생<sup>73)</sup> 증가난 문 올라 논 거 이 문 이라도 증가될 가렌허라.”

거난 이젠 베끼디 나완 이젠. 나가 가가난

“아이고, 느진덕정하님아, 저 스님이 이상허다. 석 덜 열흘 백 일만 됴민 지 생각이 난덴 허멍이<sup>74)</sup>, 지 좇아올 일이 잇젠 허난, 강이 송낙지<sup>75)</sup>도 헌착 강 부령오라<sup>76)</sup>. 장삼(長衫) 옷도 헌착<sup>77)</sup> 강 부령오라<sup>78)</sup>. 게 그거 부련 오난 스님이 이젠 돌아산 허는 말이, 녹양낙하금정옥술발<sup>79)</sup> 들러 받안 또, 헌 번을 둘러 치난 천하가 요동(搖動)허고, 두 번을 둘러 치난 지하가 요동(搖動)허연. 이젠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sup>80)</sup> 문이 싱강허게<sup>81)</sup> 절로 증가진거라. 다 축지법(縮地法)으로 허난게. 겐 그 문 증가전 돌아산 가멍

“이루제<sup>82)</sup> 날 좇앙 올 일이 썸깁네다. 날 좇앙 올 때랑, 나 철죽대 그릇 그 어두엿 가크메 그 철죽대 그릇만 보멍 날 좇앙 읍서.”

허여될 가분거 아니. 가부난 애기씨가 그날부떠 먹던 밥도 먹고 실푸고<sup>83)</sup> 속

69) 헌착 손: 한쪽 손.

70) 뜬금엇이: 난데없이.

71) 춤막춤막: 놀라서 갑자기 조금 움직이는 모양.

72) 경 곱아될: 그렇게 말해두고.

73) 추접선생<sup>73)</sup>라이: 추접선생한테

74) 난덴 허멍이: 난다고 하면서.

75) 송낙지: 고갈.

76) 부령오라: 찢어오라.

77) 헌착: 한쪽.

78) 부령오라: 찢어오라.

79) 녹양낙하금정옥술발: 요령을 일컫는 말.

80)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 살장의 종류

81)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리지거나 닫히는 소리

82) 이루제: 나중에.

83) 실푸고: 움직이거나 일하기가 싫다.



이 니올니올헌 게, 그냥 석 덜 열흘 백 일이 뉘어가난 돌콤돌콤헌<sup>84)</sup> 연드레도 먹고정 허고<sup>85)</sup>, 세금세금 오미즈도 먹고정 허고.

“아이고, 느진덕정하님아, 나 연드레나 오미즈나 먹고정 허덴.”

막 헤가난. 느진덕정하님은 멩텅이<sup>86)</sup> 들런, 높은 낭에 열매라부난 타지는 못 허고, 낭 아레 상 열매만 털어지카부덴 암만 기다려도 열맨 안 털어지믄

“아이고, 하늘님아, 브름이나 불영 열매, 오미즈<sup>87)</sup>나 연드레<sup>88)</sup>나 털어지게 협서. 우리 상전님 애기씨 이거 먹고정 허연 죽을 스경 뉘엿수다.”

허난. 추접 선생은 법당에 앓아도, 앓아 천 리, 사 만 리 보난, 낭 아레 강 느진덕정하님이 막 열매 타지 못행 우는 거를 봐주게. 경 허연 축지법으로 브름이 불게 맨든거라. 게난 브름부난 그거 방울방울 털어지난 멩텅이에 담양 오란

“아이고, 상전님아, 헛저 이거 먹영 정신 출립서. 나 이거 탕 오랏수덴.”

아, 것도 헛 두 방울 먹으면, 얼마나 먹을 듯이 헤뉘 헛 두 방울 먹으면

“아이고, 낭에 낭네 낫저<sup>89)</sup>. 풀에 풀네 낭 못 먹키여. 이것도 나 못 먹키여.”

옷도 빨양<sup>90)</sup> 그 옷 입지믄

“아이고, 똥네<sup>91)</sup> 낭 못 입으키여.”

밥도 행 안네민

“풀네 낭 못 먹키여.”

물도 안네민

“펼네<sup>92)</sup> 낭 못 먹키여.”

그냥 막 요빈닥이<sup>93)</sup> 헛거라. 점점 잇어가난 베가 점점 불려진 거 아니. 벤 불려지고, 애기는 죽을 스경(死境)이 뉘어지고. 경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편지 답장을 보내기를,

‘아이고, 임전국 대감님아, 짐전국 부인님아, 삼 년 살 공스(公事)결랑 단 셋 덜에 살양 읍서. 셋 덜 살 공스(公事)건 단 사흘 살양 읍서. 아기씨 상전님이 죽을 스경(死境)이 뉘엿수다.’

허연 편지를 띠우난, 아이고, 그땐 임전국 대감님하고 짐전국 부인님은 이것

---

84) 돌콤돌콤헌: 달콤 달콤한

85) 먹고정 허고: 먹고 싶고.

86) 멩텅이: 주로 곡식 따위를 담아두거나 담아 나르거나 할 때 쓰려고 짚을 곱게 엮어 만든 망태.

87) 오미즈: 오미자.

88) 연드레: 연다래.

89) 낭네 낫저: 나무 냄새 난다.

90) 빨양: 빨아서.

91) 똥네: 똥 냄새

92) 펼네: 펼 냄새.

93) 요빈닥이: 요망스러운 짓.

사 뭘 말이니? 그만이 우리가 다 문을 다 증가뵈 왔인디, 문 증강 와부난 무신 송시가 낮인고. 그냥 살던 공스(公事) 다 내붙어 두언 온 거라. 겐 오난. 느진덕 정하님이,

“상전님아, 아버지 어머님신디 선신문안(現身問安)을 드려사 할 거 아니꽈?”  
허난.

“게메이. 아버지만틴 어떻 선신문안(現身問安)을 드리코이?”  
허난.

“아버지는 남 부모에 여 즈식이기 때문에 펡풍 두이<sup>94</sup>)로 가뵈, 아버지만티랑 풀 죽은 옷을 입영 치메도 풀 죽영 멘지글락<sup>95</sup>) 헨거 저고리도 경 헨거 입영, 소곡소곡 굽영, 소곡소곡 소곤정<sup>96</sup>)으로 가근앵에 선신문안(現身問安)을 드립서.”

게난 느진덕정하님 곤는 데로 이젠. 문딱 그추룩 출령 아버지만티 간. 펡풍 두이로 간 선신 문안을 드리난

“아이고, 나 톨아, 아버지 어머니 엇어부난 고생 하영 헛져. 겐디 어떻허난 머린 경 주치산이 메방석<sup>97</sup>)이 뵈엇이니?”

허난

“아버지 어머니, 오카부덴 메날 머리 굽으멍 허단 보난 주치산이 메방석이 뵈엇우다.”

“눈은 무사 경 곰박눈<sup>98</sup>)이 뵈불엇이니<sup>99</sup>)?”

허난

“창고망으로, 무슨 사람 소리 브스락<sup>100</sup>) 소리만 나도 아버지 어머니, 오랏이 카부덴<sup>101</sup>) 메날<sup>102</sup>) 마당드레만 브리단보난 눈은 영 곰방눈 뵈어불엇우다.”

“게난, 코는 무사 뭉퐁코<sup>103</sup>)가 뵈엇이니?”

“콘양, 하도 울멍 콧물이영 눈물이영 하도 썬어부난<sup>104</sup>) 뭉퐁코가 뵈엇우다.”

“게난, 입은 무사 경 작박입<sup>105</sup>)이 뵈엇이니?”

“하도 울어불고 허난 영 뵈우다.”

94) 두이: 뒤.

95) 멘지글락: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풀.

96) 소곤정: 늘상 부친에 대해 지닌 정으로

97) 주치산이 메방석: 꿩이나 매가 거쳐하는 짚을 이용하여 지은 방석과 같은 자리

98) 곰박눈: ‘곰박’에 난 구멍과 같이 일그러진 모양

99) 뵈불엇이니: 되어버렸니.

100) 브스락: 바스락.

101) 오랏이카부덴: 오고 있을까봐.

102) 메날: 매일.

103) 뭉퐁코: 말의 분(糞)처럼 일그러진 코.

104) 썬어부난: 쓸어서

105) 작박입: 주걱처럼 생긴 입모양이 큰 것을 표현함.

“벤 어떻 허난 두룽둥베가 뉘엇이니?”

허난에

“느진덕 정하님이, 아버지 어머니님 엇일 때 ‘상전님아, 하영 먹영 헌저 콥서’ 허멍. 아버지 어머니님 잇일땐 흡으로 마련을 헛인디, 아버지 어머니님 엇이난 뉘로 마련허영 밥을 쥐부난 먹단 보난 벤 영 불엇우다.”

자기 자신도 애기 베진 건 몰랐지. 경 허난.

“아이고, 나똥 아기 착실허다. 느 방으로 가라.”

허연 보내난. 이젠 어머니신디 가젠 허난

“어떻허영 가느니?”

허난. 느진덕 정하님 허는 말이,

“여 부모에 여 즈식이난 무슨 송허물<sup>106</sup>)이 잇입네까, 어머니신디 갈 때랑 풀 썸<sup>107</sup>) 치메 입고, 풀 썸 치메 저고리 입고 경 허영 팽풍 베깃디레<sup>108</sup>) 말앙 그 냥 어머니신디레 강 선신문안(現身問安)을 험서.”

허난. 이젠 어머니신디레 제직제직<sup>109</sup>)허영, 영영허연 제직제직허난 벤 이만 이 험 거 아니. 경 제직제직허영 제직헌 정으로 강 선신문안(現身問安)을 가 난. 어머니도 아바님 질문허듯이 다 질문 허난, 겐디 어멍은 아멩헤도<sup>110</sup>) 내가 헤 본 경험이라 이상헌거라. 아멩헤도 이상허다 나, 똥애기야 이레 오렌, 즈꿇 디에<sup>111</sup>) 오렌 허난. 치멜 확허게 걸영보난. 아이고, 가슴에, 젓줄이 푸룽푸룽 산 거 아니. 젓에.

“아이고, 얘야, 이거 궁 안네도 븍름이 드느냐? 이거 어떻헌 일이고?”

애길 벤거라.

“아이고, 이거 큰일났젠.”

이젠 암만 아깝고 헤도 양반집이 즈식이기 때문에 죽여붙어살거 주겐 허연. 애기씨 죽이젠 허민 느진덕정하님이 왕,

“아이고, 상전님은 아무 쥬도<sup>112</sup>) 엇우다<sup>113</sup>). 나가 잘못헌 일이주 애기썸 아 주 쥬도 엇우덴 헤영 날 죽여 줍센.”

허고. 이제 또 느진덕정하님 죽이젠 허민 녹하단풍애기씨가 오랑

“아이고, 느진덕정하님 잘못헌 일 하나도 엇우다. 나가 잘못헌 일이주. 날 죽 여 줍센.”

106) 송허물: 흡이나 걸점 따위를 일컫는 말.

107) 풀썸: 풀을 강하게 해서 옷감이 뽀뽀한

108) 베깃디레: 밖으로.

109) 제직제직: 허리를 뒤로 젓히고 걸어가는 모양.

110) 아멩헤도: 아무래도.

111) 즈꿇디에: 가까이.

112) 쥬도: 죄도.

113) 엇우다: 없습니다.

허고. 아, 서로가덜 영 헤가난. 은대양에 물을 떠단, 원 이상허덴 헤연 앓전 보난<sup>114</sup>) 종이 아덜 삼 형제가 베 쏘곶에<sup>115</sup>) 잇인 거라. 야, 이거 양반칩이 스 단공즈 낫저. 이거 하나 죽이젠 헤가민 다섯 목숨이라. 베 쏘곶엿 애기 세 개에, 녹하단풍애기씨에, 느진덕정하님에. 게난 이제 다섯 목숨 죽이민 무시거 허고, 경 말양 우리가 귀양정배(定配)라도 보내영 아무디라도 그자, 가지는 디라도 강 살렌허영 보내불주긴 허연

이제 가젠 허난, 아버지도 울고 어머님도 울고 이젠 애기씨도 비세 7찌<sup>116</sup>) 울어가난, 아버지신디 하직 인사를 허레 들어가난. 아버지 비세 7찌 울멍,

“설운 나똥아, 아멍이나 아무딜 가도 명만 붙영 살렌 허멍, 울멍, 금봉채(金扇)를 내어준 거라.

“이건 무시겘<sup>117</sup>) 허는 거짜?”

허난

“이거 앓앙 덩기당, 가당가당 덩겨도 질이 안 나건 이걸로 땅을 탁탁 세 번 을 치민 느 갈 질<sup>118</sup>)이 나온다.”

게연 내어주고. 어머님신디 가난. 어머님도 비세 곶이 울멍

“설운 나똥아, 느 어멍 허연. 느 얼마나 공들게 허연 난 풀인다. 이게 무신 일이고.”

어멍도 비세 곶이 울멍, 연봉채(銀扇)를 내어준 거라.

“이거 무시거짜?”

“이것도 느 가당가당 질이 아니 나건, 땅을 연시 번만 때리민 질이 흰허 게<sup>119</sup>) 난다.”

허연. 이젠 아바님도 하직허고, 어머님도 하직허고 금마답<sup>120</sup>)에 수리를 두고, 이젠 올레에 간 막음 두언. 느진덕정하님허고, 감은 암썰 내어주난. 그것에 탄, 돌리가<sup>121</sup>) 하직 허연 올레에 나간 거 아니. 올레에 나강 보난, 스님 가명 그은 그 철죽대 그뭇이<sup>122</sup>) 흰허게 잇인 거라. 게난 그거 의지 삼안 가단 보난. 그냥 산에 불이 활활 부뜨는<sup>123</sup>) 산이 있어.

“느진덕정하님아, 저건 무신 녀이고?”

---

114) 앓전보난: 앓혀보니

115) 베 쏘곶에: 배 속에.

116) 슬픈 새처럼

117) 무시겘: 무엇을.

118) 느 갈 질 :너가 갈 길

119) 흰허게: 환하게.

120) 금마답: 마당. 전정(前庭)을 일컫는 말.

121) 돌리가: 둘이서

122) 그뭇이: 금이

123) 부뜨는: 붙는

허난.

“아이고, 상전님아, 부모 조식이 생이별을 허젠 허난, 죽어 이별은 나라에 대 동이고, 살아 이별은 생초목에 불이라. 이거 살아 이별허젠 허난 부모님네 가슴에 불이 활활 부뜨는 녀이우다.”

“아이고, 경 허냐.”

이젠 그덜 넘어산 가단 가단 보난, 물이 동산에서 알더레 내려와사혈 걸, 아랫물이 동산 우터레<sup>124</sup>) 막 치데기는거라<sup>125</sup>).

“저건 무신 녀이고?”

허난

“저건 부모 조식 생이별허연 나가젠 허난, 거은물 건드리우다<sup>126</sup>.”

“경 허냐.”

이젠 가는 거 아니. 가단 가단 바라보난, 이젠 우이는 퍼지고 알은 쫄아진<sup>127</sup>) 산이 잇어.

“야, 저건 무신 산이고?”

허난.

“저건양, 상제님아, 건지산<sup>128</sup>)이우다. 남편 본메 못 보아도, 이젠 혼전싱을 그리첫우께.

게난 옛날은 총각머리<sup>129</sup>) 허영게, 두이로 머리, 그냥 영 세 개로 갈라근에 하나로 딸왕<sup>130</sup>) 이디 영 놓앙 덩기단. 이젠 그 산 우이 올라가근엥에 건지를 허여사 험니덴.”

건지를 허문 이젠, 남편 본메를 못 봐도, 말하자면 결혼식 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게난 그디 강 앗앙 비세굴이 울멍 이젠 건지를 험거라. 삼동낭 용얼레기<sup>131</sup>) 내난 머리 빗언. 세갑머리<sup>132</sup>)를 으섯개 갈라다완, 육갑 머리로 허연, 딸와 앗언, 건지허연. 겐 그디 건지산으로 허연 앗안, 건지허연

“늑려 글라.”

가겐 허연. 나사난. 동해산, 서해산, 남해산을 넘어사난. 아양동축산이 잇인 거라. 아양동축산을 넘언 잘도 걸었주. 경 허연 가단 가단 보난, 동이 청산이 잇고, 청산을 넘어사난 청수와당(靑水海)이 잇는 거라. 청수와당(靑水海) 넘어

---

124) 우터레: 위쪽으로.

125) 치데기는거라.: 치올리는거라.

126) 거은물 건드리우다: 거슬러 흐르는 물 거슬린 다리입니다.

127) 쫄아진: 좁아진.

128) 건지 산: 건지머리 (머리를 올려 결혼했음을 나타냄) 상.

129) 총각머리: 처녀나 총각이 양쪽으로 딸아 길게 늘어뜨린 머리.

130) 딸왕: 딸아서.

131) 삼동낭 용얼레기: 삼동나무로 만든 빗.

132) 세갑머리: 세 가닥으로 갈라 땀은 머리.

가젠 허난 질이<sup>133</sup>) 안 난 거 아니. 이제 아버지 준 금봉채(金扇) 내어 놓안 딱  
딱 연세 번 치난, 질이 흰허게 난거라. 그 질로 허연 가단 보난 청몰레왓이 나  
오고, 서이 백산, 백몰레산도 넘어사고, 이젠 남해 적산 흑몰레왓을 넘어사고,  
넘어왔언 가노렌 허난. 가단가단 보난 낙수와당 수삼천릿질이(數三千里路) 나  
온 거라. 낙수와당 수삼천릿질(數三千里路), 큰 강인지 바당인지 경 헨 나오난.  
그거를 넘어가젠 어멍 준 은봉채를 내어낸 연시 번을 후려도 질이 아니 나. 이  
젠

“아이고, 이디도 못 넘어가고 이 노릇을 어떻헨 좋고.”

헨. 느진덕정하님허고 애기씨허고 앓안 비세겘이 우노렌 헨. 아, 울단보난 무  
정 눈에 줍이 소로록허게 온 거 아니. 경 헨 자노렌 허난 꿈에 선몽을 허기를,  
하양 현 백강생이<sup>134</sup>) 나완 꼰렁이<sup>135</sup>) 흔들흔돌허멍

“아이고, 상전님아, 무사 이디서 영 앓안 울곡 즐앓수파<sup>136</sup>)?”

경 허난.

“난, 이 질을 못 넘어간 헛저.”

허난에.

“게난, 는 누게고?”

허난

“난, 옛날 상전님에 집이 백강생이로 강 살앗우다만은, 상전님 하도 날 애껴  
주언 허단 죽으난, 난 요왕황제국(龍王皇帝國) 딱님애긴디 하도 쥐가 만허연  
우리 부모님네가 날 인간에 백강생이로 귀양정베 보내부난, 상전님네 집이 간.  
나 살단 죽으난 요왕황제국 던져부난, 난 요왕황제국 풀이우덴. 이디 잇입서.  
아버지 어머니안티 강 등장을 들영 이디 건너갈 걸 나가 마련을 허쿠덴.”

겐. 흐꿈<sup>137</sup>) 잇이난 큰 거북이가 온 거라. 거북이가 완 영 눈짓으로 이제 지  
등더레<sup>138</sup>) 타렌. 게난 그디 녹하단풍즈치명왕 애기씨허고 느진덕정하님허고 둘  
이 타든 좋주. 감은 암쇄<sup>139</sup>) 꺾지 테왕 갈 순 엇인 거라. 게난 이젠 아이고,  
감은 암쇄랑 클러 쥐 불게. 아무데라도 지 살 도리를 행 살게. 겐 클러 뒸. 그  
걸 탄 넘어가노렌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영 뒤돌안보난 놈이 곡석 밧디 든 거  
아니.

“아이고, 상전님아, 저거 봅서. 감은 암쇄 그동안 놈이 곡석밧디<sup>140</sup>) 들엇우

133) 넘어가젠 허난 질이: 넘어가려고 하니 길이.

134) 하양 현 백강생이: 하얀 백(白)강아지.

135) 꼰렁이: 꼬리.

136) 즐앓수파: 즐고 있습니까.

137) 흐꿈: 조금.

138) 지등더레: 자기의 등에

139) 감은 암쇄: 검은 암소.

140) 놈이 곡석 밧디: 남의 곡식 밧에.

다.”

허난.

“아이고, 본 말랑 본디 브리고, 들은 말은 들은 디 브령 흔저 글라.”

겐 헨. 가단 보난, 벌써 추접선생은 이제 녹하단풍 애기씨가 이녁<sup>141)</sup> 좇아 오는 거를 안거라. 알안 질을 닦으렌 허연, 이제 열두 문을, 다 질을 닦아근에게<sup>142)</sup> 문을 잡으렌 허고, 헨 착 찢어분<sup>143)</sup> 송낙도 큰 낭에 간 탁허게 돌아메고, 장삼도 찢어분 거 돌아메고. 게난 애기썸 그걸 다 콤에 콤언<sup>144)</sup> 놔뒀주게. 그 찢어논 거를. 게 본메본짱이난. 질을 닦으는 인정을 드렌 헨<sup>145)</sup> 거 아니. 무슨 인정, 돈 가정 가서. 돈도 안 가정 갓인디, 돈도 엇고. 이젠 상전님 열두 폭 치메를<sup>146)</sup> 입엇단 헨 폭씩 브려네<sup>147)</sup> 열두 문에 인정 걸어부난. 치메가 엇 인거라, 허리뻘이. 게난, 느진덕정하님 7라,

“아이고, 그 치메 우리 으섯 폭씩 갈라 입겐.”

겐, 느진덕정하님 치메 브령 이녁<sup>148)</sup> 허리더레, 허리만 남으난, 허리더레 들 안. 경 허연 먼 올레로 가단보난, 헨 착 엇인 송낙도 브름에 년들년들 헛고, 장삼도 헨 착 풀 찢어져분 거 년들년들 헛이난, 이녁 가슴에 요디 콤엇단 거 술짝 앗아내언 그디 간 맞춰보난 똑히 맞으는거라. 아이고, 이거 분명히 잘 좇 앙 오랏젠. 이젠 스님한티 좇안 들어가난에, 추접 선생 허는 말이,

“날 좇앙 오랏건 초나록을 내어주크메 그거 반착짜리 쓸 하나토 엇이, 착쓸<sup>149)</sup>하나 엇이 그거를 문딱<sup>150)</sup> 깡 헨 동이를 올리면 날 좇앙 온 게 분명허덴.”

허난. 아이고, 이젠 그걸 앗안 느진덕정하님허고 돌이가 그걸 베깃디<sup>151)</sup> 나 오란 니빨로<sup>152)</sup> 까젠 허난 니빨 아프고, 손콥으로<sup>153)</sup> 까젠 허난 손콥 아프고. 이젠 그거 까단 스로록허게<sup>154)</sup> 줌 들어분 거라. 줌드난 꺾설메에<sup>155)</sup> 막 생이 들 소리가 오조조조 소리가 나난. 그냥 새 다울림이엔<sup>156)</sup>

“주어 저 새!”

---

141) 이녁: 자기를.

142) 질을 닦아근에게: 길을 닦아서.

143) 찢어분: 찢어버린.

144) 콤에 콤언: 품에 품어서.

145) 드렌 헨: 달라고 한.

146) 치메를: 치마를.

147) 헨 폭씩 브려네: 한 폭씩 찢어서.

148) 이녁: 자기.

149) 착쓸: 반쪽 쌀.

150) 문딱: 모두.

151) 베깃디: 밖에.

152) 니빨로: 이빨로.

153) 손콥으로: 손톱으로.

154) 스로록허게: 알맹이나 액체 따위가 가볍게 빠져 나가거나 들어가는 꼴. 곱게 잠이 드는 꼴.

155) 꺾설메에: 실체가 없는 소리를 잠깐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듯한 환청 현상.

156) 다울림이엔: 내쫓는다고.

헨 다올린 게, 새들이 놀멍<sup>157)</sup> 놀게로<sup>158)</sup> 퍼딱 허난, 새들이 완 다 까준 거라. 겐 까난, 채는 채대로 쓸은 쓸대로. 게난, 착쓸 하나도 엇이. 아이, 헨 동 일 다 까진 거 아니. 겐 그걸 추접 선생안티 바찌난,

“아이고, 날 좇아 온 자가 적실허다<sup>159)</sup>. 경 허면 우리 법당에는 부부출령 사는 법이 엇이난 내가 시왕 곱은연질을<sup>160)</sup> 놓아주크메 시왕 곱은연질을 탕 그디 내려사민 불도땅이난 그디 강 해산도 허고, 그디 내려사렌. 게난 시왕 곱은연질을 추접 선생이 놓아주난 내려산 불도땅에 간 거라. 가난 예산 친구월 초여드렌 뉘난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애긴 낱젠 허난. 둥글단 보난 베 쏘곶에 애긴 알로 낱젠 헤도 알은 아버지도 못 본 궁문이여. 느단 겨드랑이<sup>161)</sup>로 헤우천<sup>162)</sup> 뜰언<sup>163)</sup> 나온 거라. 겐 그 애기 원이자랑 원이자랑 헤노렌 허난, 아, 열으드렌 뉘난 또 신명두가 나오젠 허난, 알로 낱젠 헤도 아버지도 못 본 궁문이고, 느단 겨드랑이론 성(兄)이 나와 부난 부정이 만허고, 이젠 웬 겨드랑일 헤우천 나온 거라. 경 헨 나오난, 원이자랑 원이자랑. 이제 또 스무여드렛 날은 뉘난, 살아살축 삼명두가, 이젠 신명두 본명두 경 헨 솟아나고, 살아살축 삼 형제가 나오젠 허난, 웬 쪽도, 느단 쪽은 제일 큰 성이 나와나불고, 웬 쪽은 작은 성이 나와난 부정들 허고, 게난 이 오모손이<sup>164)</sup>, 요 가슴을 헤쌍 나온 거라. 겐 나오난 이 애기덜 원이자랑 원이자랑 허멍 키워가난, 헨 서너 설 뉘언, 대으섯 설 뉘난 동네 친구덜 도둑질 허는 친구들이영 놀민 도둑질만 허젠허고, 또 칼들령 무신 쉼나 잡고 무슨거 허는 친구들이영 놀민 칼들령 그것들 허젠허고. 아이고, 이거 아니 뉘키여. 이거 벅을 잘해사 애기덜을 잘 키울로구나허연. 게난 그 동네에 거무 선생이 잇어난 쟁이라. 거무 선생안티 좇앙 간, 어머니,

“거무 선생님아, 우리 식구들 이디 써 줘서. 날랑양 부엌데기로<sup>165)</sup> 들어사고, 우리 큰아덜랑 굴묵지기<sup>166)</sup>로 들어사고, 셋아덜랑 베리지기<sup>167)</sup>로 들어사고, 작은아덜랑 문지기로 들어상, 우리가 거무 선생 집이 일을 허쿠다.”

허난.

---

157) 놀멍: 놀면서.

158) 놀게로: 날개로.

159) 적실허다: 틀림없이 확실하다.

160) 곱은연질: 꼬부라진 길. ‘연질’의 ‘연-’은 접두사.

161) 느단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162) 헤우천: 헤쳐서.

163) 뜰언: 뜰어서.

164) 오모손이: 오목가슴.

165) 부엌데기로: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166) 굴묵지기: 온돌 아궁이 불 때는 사람.

167) 베리지기: 벼루지기.



“게문 경 허렌.”

허연. 어멍은 부엌지기로 들어상 부엌에서 하간거<sup>168)</sup>, 거무 선생안티 물도 떠 가고, 밥도 행 올리고, 큰아덜은 굴묵에서 앓앙 어둑어가민, 열어가민 굴묵도 지더<sup>169)</sup> 안네고, 셋아덜은 선생 글 쓰젠허민 즈꿏디<sup>170)</sup> 앓앙 먹 곶아 안네고, 족은아덜은 문 옆이 샷당<sup>171)</sup> 그디 글 공부허는 아이들이영 문도 올라주고 덮어주고, 경 허는디, 눈치로 보멍, 거무 선생 글 허는 걸, 아이덜 글 허는 걸 눈치로, 윗 눈으로 브레멍<sup>172)</sup> 글 공부를 배운거라. 겐 그날 배운 공부는 어둑영 아이들 다 가불민 굴묵에 강 고는 대로 슬슬허게 재 등겨다 낵<sup>173)</sup>, 경 헨 손으로 끈끈허게 녹들어 낵에<sup>174)</sup> 그날 배운, 복습을 허는거라 말하자면. 경 허멍 공부를 허는 것이, 흐를 낵은 거무 선생이 집안 윗타릴 돌단 보난, 굴묵에 천하 명필 글씨가 잇인거라. 보난, 재 우이 천지혼합(天地混合) 천지개벽(天地開闢) 세상에 없는 글이라. 아이고, 이 아이들 이거 이렇게 똑똑헌, 으망진 아이들이로구나. 마침 서울 상시관이 시월동당 과거가 잇젠허난, 과거보레 가젠 삼천 선비들을 이제 다 준비들을 허는디, 이젠 그 애기덜토<sup>175)</sup>

“어머님아, 우리도 과거보레 가민 어떻허우꽈?”

허난.

“아이고, 느네덜<sup>176)</sup> 과거를 보레 가젠 허민 옷도 엇고, 어떻헨 갈티<sup>177)</sup>?”

느네들 공부나 다 허영 나사민 구쟁이, 점벙이나 하나씩 행 입지젠<sup>178)</sup> 돈 세입, 툃툃허게<sup>179)</sup> 소중기<sup>180)</sup>에 짤 곱전 낵단 이제 그거 내낵 구쟁이<sup>181)</sup> 점벙이<sup>182)</sup> 하나씩 행 입지고, 느네들, 게걸랑<sup>183)</sup> 명심허여근에 강 오렌 허연. 보낼 때에 거무 선생이 허는 말이,

“저 아이들 삼형제 들앙가민 느네들 과거 낙방헌다. 절대 저 아이들 글이 명필이라라.”

허연. 곶아분 거라<sup>184)</sup>. 재에 쓴 거를 본 거를, 경 헨 곶아부난. 이젠, 가가민

168) 하간거: 이것저것의 모두.

169) 지더: 불을 때서.

170) 즈꿏디: 걸 또는 가까운 곳.

171) 샷당: 샷다가.

172) 윗 눈으로 브레멍: 옆 눈으로 보면서.

173) 등겨다 낵: 당겨다 놓고.

174) 녹들어 낵에: 눌러 놓고

175) 애기덜토: 애기들도.

176) 느네덜: 너희들.

177) 어떻헨 갈티: 어떻게 해서 갈거니.

178) 입지젠: 입히려고.

179) 툃툃허게: 단단하게.

180) 소중기: 무명이나 삼베로 만든 여자의 속옷인데 폭이 넓고 길이는 무릎까지 옴.

181) 구쟁이: 일할 때 입는 얇은 옷.

182) 점벙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훌바지.

183) 게걸랑: 그렇다면.

삼천선비들은 가이들 안 들앙가젠 돌멩이로 맞춰 불고, 가가민 두드려 불고, 막뎡이로 앓앙 떼려 불고 허멍, 가가민 기어코 쫓아 간 거라. 겐 하도 쫓아 가가난 이젠 삼천선비들도 귀찮은 모양이지. 경 허연 쫓아가노렌 허난 베좌수 고을은 딱 들어사난, 베 낭 우이 베가 드랑드랑 올라시난에<sup>185)</sup> 삼천선비들이 꺾을 쓴 거주게.

“경 말앙이 느네들 우리영 훈디 가컬랑은에게<sup>186)</sup> 저 베 낭 우이 올라강 훈사름이 천 방울씩 탕이, 우리 삼천선비들 훈 방울씩, 너네 삼형제난 삼천 개타당 우리 갈라주민<sup>187)</sup> 너네 들앙가키여.”

허난. 그 아이들은 아이고, 베라도 탕 삼천선비들 주민 곱게 들앙 거주카부덴 베 낭 우이 올라간 거 아니. 베 낭 우이 곱은 디 곱역 곱은 디 곱역 허멍들 올라간. 베 훈 사름이 천 방울씩, 다님<sup>188)</sup>은 묶으고 허리만 클렁 이 쏘곶더레 타명 담은 거라. 양 가달에 소뻑허게시리<sup>189)</sup> 천 방울씩 담은, 돌베주게 요만씩 현 거게 경 헨 담은, 올라가도 못허고 내려오도 못허영 허난 삼천선비들은

“우리 가자.”

허연. 와르르르 다 돌아나분 거 아니 . 그 아이들은 베 낭 우이서 비세곶이 운거라. 게 울어가난 아, 그날 이 베좌수 꿈에 선몽허기를, 베 낭 우이 청룡황룡 뱀이 얹어지고 틀어진 거라.

‘아이고, 피라곡절(必有曲折) 허다.’

뒷날 아척은<sup>190)</sup> 베지근이<sup>191)</sup> 동 터가난, 베 낭 우이 히뚜룩현 거<sup>192)</sup> 뭐 있어.

“야, 너네 귀신이나, 쟁인이나? 귀신이건 썩 물러나고 쟁인이건 어서 내려오렌.”

허난. 가이들 삼형제가

“우린, 귀신이 어찌 여기 올 수가 잇입네까. 우린 젓북이삼형젠디 과거보레가단 삼천선비들이 베 삼천 방울 땅완<sup>193)</sup> 하나씩 갈라 주민 들앙가켄 허난, 이디 완 벤 타 놓고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헨 영 울었우다.”

184) 곶아분 거라: 말해버린 거야.

185) 올라시난에: 열려있어서

186) 가컬랑은에게: 가고 싶다면.

187) 갈라주민: 나눠주면.

188) 다님: 대님.

189) 소뻑허게시리: 가득하게.

190) 아척은: 아침엔

191) 베지근이: 헤지근이. 주로 날이 밝으려 할 때 빛이 약하고 가늘게 퍼져 오르면서 희미하게 밝아 오다.

192) 히뚜룩현 거: 어느 정도 흰색이 떠올라 비치다.

193) 땅완: 따와서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계건 다님<sup>194)</sup> 풀어볼라.”

겐 다님 풀어부난. 벤, 삼천 방울 다르르허게 알더레<sup>195)</sup> 털어진 거 아니. 게  
난 그땐 이젠 너네 훈저 느려오렌 허연. 그 애기덜 느루완

“아이고, 느네 어제 저녁부터 올라간 그 진진헌<sup>196)</sup> 밤을 세고 허젠 허난 베  
고프진 안허냐?”

이레 오렌들 허연. 식은 밥에 물좁이<sup>197)</sup>허연 훈 그릇씩 좁안 맥연.

“설운 애기덜아, 니네 가민 분명히 당선됐다.”

그 청룡 황룡이 막 엮어진, 꿈에 경 허난,

“느네, 당선됐다. 훈저 가렌.”

허연. 보내난 삼형제가 가노렌 허난. 청만주에미<sup>198)</sup>가 그냥 웨우느다<sup>199)</sup> 갈  
라가는 거라. 게난 그 법으로 시왕맞이<sup>200)</sup> 혈 때는, 우리 일 허레 강 시왕맞이  
혈 때는 이런 물섹<sup>201)</sup>이나 막 허영 이레 감고, 저레 감고 천장에 막 만주에미  
베염 질 갈라난 식으로 그걸 막 엮으는 거주게. 경 허연 이젠 넘어산. 이젠 들  
으멍 기멍 소못, 요즘 사람 말 마땅이나 발바닥에 불이나게 간 보난, 동문 서  
문 남문을 다 잡아 분거라. 상시관에, 동안문 마당에, 게난 들어가도 못허고  
올레에 수양청버드낭 하나 잇이난, 그거 의지삼양, 그늘 삼양 그디 앓아둬  
서<sup>202)</sup> 이 노릇을 어떻 허민 좋고허연 그క్క지 가두고 허연 헤가난. 아이, 주모  
할망 꿈에 선몽을 헨거라. 게난 주막 집이 할망이주게. 주막 집 할망 꿈에 스  
님이 선몽(現夢)허기를,

‘아무 디 강 보민, 수양청버드낭 아래 도령들 서이가 앓앙 비세굴이 울없이  
메 그 아이덜 돌아당 시장기도 멀려주고, 그 아이덜 밥 먹는 동안에 붓전에 강  
붓도 사다주고, 종이전에도 강 종이도 사다주고, 베리전에 강 베리도 사다주  
렌.’

경 헨 선몽(現夢)을 딱 시킨 거라. 경 헨 가이덜 글 쓰걸랑, 할망 손지가, 웨  
손지<sup>203)</sup>가 상시관이, 아멩헤도<sup>204)</sup> 몸종사 뉘신 7라. 경 헨 글 쓰걸랑 손지안티  
주렌. 경 허영 꿈에 선몽(現夢)을 허난, 퍼쩍 깨난 보난 꿈이라. 아이, 이젠 훗

194) 다님: 대님.

195) 알더레: 말으로.

196) 진진헌: 길고 긴.

197) 물좁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198) 청 만주에미: 작은 뱀

199) 웨우느다: 좌우로.

200) 시왕맞이: 시왕에게 축원하는 곳 이름. 무혼(撫魂), 치병(治病) 등을 위하여 함.

201) 물섹: 알록달록하게 물들인 천.

202) 앓아둬서: 거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203) 웨손지: 외손자.

204) 아멩헤도: 아무래도.

아앗엉<sup>205</sup>) 간 보난, 수양청버드낭 아래

삼형제가 앓앙 비세글이 우는 거 아니. 베 고프고 허난.

“아이고, 느네들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연. 그 애기덜 돌아단 밥 허영 주고,

“느네들, 밥 먹없이라이.”

헤 될. 나산에, 베리전에 강 베리사젠, 영 심젠 허민 청주녕이가<sup>206</sup>) 그레 바르르허게 기고, 붓전에 강 붓 사젠 허민 흑주녕이가 바르르허게 기고, 아이고, 첨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현 일이엔. 경 헨 그거 문딱<sup>207</sup>) 베리영<sup>208</sup>) 상 완.

“느네들, 글 쓰라.”

허연. 겐 글 썬.

“걸 날 쥐 똥 가렌.”

허연. 걸 할망이 맡앗단. 점심 시간에 손지가 점심 먹으레 왔이난, 이거, 강 상시관이 독무릅<sup>209</sup>) 앞더레 강 솔쩍이<sup>210</sup>) 놓아불렌. 게난 손진 앓앙 간, 상시관 독무릅더레 솔쩍이 논 거 아니. 독무릅 밋더레<sup>211</sup>). 과거를 다 끝난. 과거를 주젠 삼천선비들 글을 지은 것이. 과거 줄 만한 글이 엇인 거라. 이젠 무릅 아래 낫던 거를 내난 보난.

아, 세상없는 천지개벽(天地開闢), 천지혼합(天地混合), 천양베포 경 허연 썬 이난. 아이고, 이거 세상 없는 글이라고.

“이거, 누게가 썬느냐?”

삼천 선비들 7라 곱으난, 아무도 안 썬덴 허는 거라. 게난 할망 손지가 허는 말이,

“저 올레 베깃디<sup>212</sup>) 보난, 수양청버드낭 아래 도령 서이가 앓아십디다.”

허난.

“게건, 가이덜을 돌아와보라.”

허난. 그 아이덜을 돌아 완

“이거 너네가 썬느냐?”

허난

“예, 썬습니다.”

“게문, 너네들 또 훈 번 써 볼 수 잇겠느냐?”

---

205) 훗아앗엉: 찾아서.

206) 청주녕이가: 청지네가.

207) 문딱: 전부. 모두.

208) 베리영: 베투하고

209) 독무릅: 무릎.

210) 솔쩍이: 살짝

211) 밋더레: 밑에

212) 베깃디: 밖에.

허난.

“예. 쓰겠습니다.”

계난, 삼형제가 붓을 먹 적정은에<sup>213)</sup> 입에 물엿 입으로 영영훤훤 써도 그추룩<sup>214)</sup> 쓰고, 손가락에 꿩엿 써도 경 쓰고, 발가락에 꿩엿 써도 경 쓰고. 아이, 천하 멩필이로구나. 삼천선비들 다 낙방을 시겨분거라. 가이들 과거 당선허연 과거를 준 거라. 겐 과거를 주난, 유정싱 아들이 그디 과거를 보레 가나신<sup>215)</sup> 거라<sup>215)</sup>, 유정싱 아들이 상시관(上試官)신디 간.

“왜? 우리 양반에 자식은 과거를 안주고, 종이 족식은 과거를 줘네까?”

허난.

“종이 족식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잇느냐?”

허난.

“훈번 배석상(拜席床)을 출령 술허고 꺾기하거 줘 봅서. 자이네<sup>216)</sup> 먹느냐.”

허난. 이젠 술허고 꺾기허고 상에 출려주난. 아이, 아닌게 아니라.

‘이거 아버지도 아니 먹어난 건디 이거 먹으믄 뒤랴.’

헨. 가이들 안 먹어 부난 또 낙방시겨분 거 아니. 겐 낙방 시건. 재과거를 허젠 허난.

이젠 연주문을 활로 맞추는 자를 이제 과거를 주기로 헛어. 계난 화살들을 다 하나씩 주난, 삼천 선비들이 다 맞쳐도 연주문을 못 맞쳐. 맞추는 사름 하나도 엇인 거라. 계난 그 아이덜이 딱 간 허는 말이,

“우리도 과거는 아니 주어도 좋수다만은, 훈 번 활이나 훈 번 등겨똥 가쿠다<sup>217)</sup>.”

계난

“경 허렌.”

허난. 놉잇 아이덜 쏘아난 거, 활이영 쌀이영 좃영, 문딱<sup>218)</sup> 발루완<sup>219)</sup>, 꺾꺾 놀리멍<sup>220)</sup> 발루완, 그걸로 제일 큰 성은 맞친 게 켈 우이 간 맞친 거라. 이제 셋 성은 맞치난 가운데 복판을 간 맞친 거라. 족은 아신 맞친 게 제일 굽동허랄<sup>221)</sup> 맞치난 연주문이 왈랑허게<sup>222)</sup> 씨더젓어<sup>223)</sup>. 부서질 정도로 맞쳐부난, 예

213) 적정은에: 적셔서.

214) 그추룩: 그렇게.

215) 가나신<sup>215)</sup> 거라: 갔던 모양이라.

216) 자이네: 저 아이들.

217) 등겨똥 가쿠다: 당겨두고 가겠습니다.

218) 문딱: 모두.

219) 발루완: 바르게 해서.

220) 꺾꺾 놀리멍: 꼭꼭 누르면서.

221) 굽동허랄: 밑동의 허리를.

222) 왈랑허게: 한꺼번에 덤비거나 쓰러지는 꼴.

223) 씨더젓어: 쓰러졌어.

이씨, 우리 과거도 낙방시켜 불고 허난, 부엌 질에<sup>224)</sup> 앓양 등겨분 거주계<sup>225)</sup>.  
계난 그 연주문이 부슬라져부난<sup>226)</sup>, 아이고, 과거 당선 뒤젠. 과거를 준 거아  
니. 재과거를 허연 주난, 와라차락 막 허난, 이젠 유정싱 아들이, 삼천 선비들  
을 시킨 거지. 빨리 강, 옛날은 부모가 죽으면 과거를 헤여도 과거를 안줘났  
덴.

계난, 빨리 흔저 강, 어멍 잇일 거난<sup>227)</sup>, 어멍을 간 짚은 궁더레 가두와불렌  
헌거라. 겐 가두와뒤 어멍 죽엇젠 거짓말 허영 이것들 과거 불합격 허게 헤불  
젠. 경 헨 이제 앞이 놀아완<sup>228)</sup> 어멍은 이제 물명지 전데로 걸려단 짚은 궁에  
간, 아들들 너무 별란허게 낫젠 허영 간, 가되 불고. 이제 느진덕정하님은, 어  
멍 속곳하나 허영 이젠, 봉분을 맨든거주계. 속곳<sup>229)</sup> 하나 담아 난 봉분<sup>230)</sup>을  
맨들안 잇이난, 삼형젠 과거 허영 비비둥당 앞엔 선배, 뒤엔 후배 막 어수에  
비수에 청금 옥단지 비리단지 불명, 막 빠라바바 허멍 오는 거라. 과거 허영  
와 가난, 이젠 오단 보난 느진덕정하님이 먼 정까지<sup>231)</sup> 나산거라.

아이고, 어느제랑 강 우리 어머니 기쁘게 헤 드리곤. 삼형젠 기분 좋게 오는  
디, 느진덕정하님이 울멍,

“아이고, 죽은 상전님네야, 과거는 허민 뒤 허곡, 등당은 허민 뒤 헉네까?  
상전님, 어제 그지겿 날<sup>232)</sup> 죽언에 출병막<sup>233)</sup> 헛우덴.”

허난. 그뎐 오금<sup>234)</sup>이 느큰헌<sup>235)</sup> 거 아니. 아이고, 어멍 엇인디 과거는 허민  
무시겿 허여. 이제 과거덜 다 돌아가렌. 앞인 선배, 뒤엔 후배, 일과노 일기생  
들이고, 다 돌아가렌 허연 문막 보내어 뒤. 행경(行纏) 벗언 통두건으로 데가  
리에 쓰고, 두루막 벗언, 어멍은 웨가난, 웬짝 팔 내어 난 이제 좃쟁이<sup>236)</sup> 알  
로 묶으고, 경 허연.

“어멍, 우리 어멍 어디 문엇이니? 출병막이나 ㄱ르쳐도렌.”

경 허연 강 보난, 산이 잇인 거라. 경 허연이고 우리가 어머니 그냥 영 문영  
만<sup>237)</sup> 볼게 아니고 죽은 어멍 얼굴이라도 보켄. 경 허연 그걸 판 보난, 어멍

224) 부엌 질에: 화가 난 상태에서.

225) 등겨분 거주계: 당겨버린 거지계.

226) 부슬라져 부난: 부스러져 버려서.

227) 잇일 거난: 잇을 거니까

228) 놀아완: 날아와서. 날아서 오는 것만큼 빨리 왔다는 말.

229) 속곳: 속옷.

230) 봉분: 묘. 산.

231) 먼 정까지: 먼 올레의 정까지.

232) 그지겿날: 그저께 날

233) 출병막: 정식 매장을 하기 전에 송장을 가까운 곳에 임시 묻어 두는 일. ‘토롱’이라고도 함.

234) 오금: 허벅다리나 무릎의 구부리는 안쪽.

235) 느큰헌: 충격을 받아 힘이 빠져 나른한.

236) 좃쟁이: 겨드랑이.

237) 문영만: 묻어서만

얼굴이랑마랑 어멍은 엇고 어멍 속곳<sup>238)</sup> 하나 잇인 거라. 계난 그거 들런 나산디<sup>239)</sup> 산 봉분 우이로 옷 상제가 딱허게 벌러지는 거라. 계난 우터레 가라 허는 거주게. 계난 느진덕정하님<sup>7)</sup>라 들은 거라.

“우리 웨가가 어딜로 가민 잇이넨?”

허난.

“천하임전국 대감님은 웨하르방<sup>240)</sup>이고, 느신땅에 지하짐전국 부인은 웨할망<sup>241)</sup>이난 아멩 아멩이영 좃앙 갑서<sup>242)</sup>.”

허난. 이제 삼형제가 어멍 속곳은 들런 거주. 어멍 속곳을 본메본짱<sup>243)</sup>으로 그걸 들르고 허연 웨가를 좃으멍 좃으멍 간 거라.

가난, 가멩문<sup>244)</sup>도 안 올라 쥘. 웨손지들 왓젠 허난, 그 스님 애기들엔 헨게, 양반칩이게, 암만 웨손지라도. 경 헨 가멩벧줄<sup>245)</sup> 문도 안 올라주난 족은 문으로, 이제 먼 올레에 앗안, 경 헨 앗젠 허난, 그 애기덜 앗아난 디 폴사 죽으카 부덴산디. 웨하르방 웨할망이 초석을 하나 준거라. 그거 주멍 그거 꼴앙 앗앗당, 그거 꼴앙 앗으렌. 계난 그거 꼴앙 앗으난,

“우리 성가가 어딤네까?”

허난.

“느네 아방을 좃으컨, 황금산 도단땅에 가민 추접절이 잇인디. 그디 추접선 쟁이 느네 아버지여.”

그딜 좃앙 가렌. 계난 생각을 허난 귀썸헌거라. 웨하르방 웨할망사 게도 암만 뭐 허주만은 문도 안 올라 주고, 올레 베깃디서<sup>246)</sup> 초석 주멍 앗으렌, 초석을 그자 우리 앗아난 것도 물이라도 털어지카부덴 험시카부덴 뱅뵁 몰아앗언<sup>247)</sup> 읍뵁이에<sup>248)</sup> 탁허게 끼어앗언 앗안 가부는 거라. 겐 황금산을 좃아 앗언 올라가노렌 허난 팽즈낭<sup>249)</sup>이 소뵁허고<sup>250)</sup>, 유저낭<sup>251)</sup>이 소뵁헌 디가 있어. 그 질을 헤우천<sup>252)</sup> 가단 보난, 어떤 도령들 서이가 앗앙 비세굴이 우는 거 아

---

238) 속곳: 속옷.

239) 들런 나산디: 들러서 나서는데

240) 웨하르방: 외할아버지.

241) 웨할망: 외할머니.

242) 아멩 아멩이영 좃앙 갑서: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서 가세요.

243)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증거물.

244) 가멩문: 가마 문

245) 가메벧줄: 가마의 밧줄

246) 베깃디서: 밖에서.

247) 뱅뵁 몰아앗언: 뱅뵁 말아서.

248) 읍뵁이에: 옆에

249) 팽즈낭: 팽나무.

250) 소뵁허고: 가득하고.

251) 유저낭: 유자나무.

252) 헤우천: 헤쳐서.

니. 울어 가난

“느네 무사 이디 앓앙 울엄디??”

“아이고, 말도 말고, 이르도 맙서. 어멍 아방 다 죽어 불고, 일가 쨌당 엇고 영 허난, 갈 데 올 데 엇언 앓안 울었우다.”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느네나 우리나라 훈 팔즈, 훈 스주여. 경 말앙 우리 육형제나 삼겐.”

그 어멍 속곳 앓앙 덩기단 어멍 속곳으로 웨으로 들어강 느다 나오고, 느다 들어강 웨로 나오고, 게난 어머니가 낳았다는 표실 허젠게<sup>253</sup>). 겐 육항열(六行列)을 삼아 두언. 이젠

“경 말앙이, 느네들 이디 앓앙 잇이라. 아무 날 아무 시가 됴민, 아무 때가 됴민 우리 만날 날이 잇일 거여. 어디 가지말앙 이디 꼭 잇이렌.”

허연 헤 됴. 아방국을 가는데 첩첩산중이라 제우제우<sup>254</sup>) 간 거라. 가난, 올레 에 간 앓으난, 마당 너구리 땅 너구리 개는 드르쿵쿵 내쿵쿵 주끄는<sup>255</sup>) 거아 니. 겐 아버지가<sup>256</sup>) 피라곡절(必有曲折)허다 허연 나완 보난, 도령들 삼형제가, 첩 아들들이 완 앓은 거라. 아버지는 벌써 아들들인 줄 알앗주게. 경 헤도 아들들은 아버지를 몰라. 봐 보지도 안허고, 월 뉘허난, 손 심영 들어 완

“느네 어뎡 허연 오란디?”

허난.

“우리 아버질 좃안 오랏우다.”

“게난 느네 외가영 어멍 이름 곱아보라.”

허난에. 아, 곱는 건 보난 다 맞앗어. 아방 이름도 다 곱고, 게난.

“설운 애기들아, 잘 좃안 오랏구나.”

경 헤연, 이때에 어떤 사름은 절에서도 상을 출령<sup>257</sup>) 쫓덴<sup>258</sup>) 허여. 절에서도 술허고 꺽기허고 놓안 스님이 딱 출령 주난, 이건 우리 아버지도 안 먹어난 음식이난 안 먹켄. 게난, 안 먹영 내려놔 부난, 내 자식이 적실허다<sup>259</sup>). 경 헛헛덴도 허고

“아이고, 설운 애기들 느네 이디 오젠 허난, 하늘 보멍 오랏이나? 하늘 천자, 땅 보멍 오랏이나? 따 지자, 물으멍 오랏이나? 물을 문자. 올레 보멍 오랏

253) 표실 허젠게: 표시를 하려고.

254) 제우제우: 겨우겨우.

255) 주끄는: 짓는.

256) 아버지가: 삼형제의 아버지, 추접 선생을 말함.

257) 출령: 차려서

258) 쫓덴: 주었다고.

259) 적실허다: 틀림없이 확실하다.



이나? 올레 문자.”

경 허영 그 천문에 하늘 천, 물을 문자하고 딱 글을 베견<sup>260</sup>) 경 허영 주어  
된.

“설은 애기들아, 느네들이 어명을 좇젠 허민<sup>261</sup>), 과거는 허민 당대고, 심방  
질<sup>262</sup>)은 허민 전대전손(傳代傳孫) 만대유전(萬代遺傳) 유래전득(遺來傳得) 될거  
여, 계난 느네가 어명을 좇젠허민 심방질을 헤사 한다. 계난, 아무건들 어려웁  
네까. 머리 삭발, 아버지가 문딱 삼형제를 머릴 박박 감아 두언. 아무 거라도  
허쿠덴. 경 허민, 굿을 허젠 허민 뭐가 있어야 헐 거난. 설은 애기들, 글렌 허  
연. 계난 아방 본메는 천문이주. 계난, 그 하늘 천자 따 지자 물을 문자 쓴 거  
는 아방 본메로, 낭에다가 동골락허게<sup>263</sup>) 남천문<sup>264</sup>)을 만든 거라. 남천문을 만  
들고, 어명 본메로는 모옥상잔<sup>265</sup>), 동골락 헌거로 이건 어명 본메로, 그걸 나  
무로 다 판, 아방이. 다 팡 본메를 멘들안. 이제 이 애기덜 돌아왔언 어덜 가  
신고 허면 백몰레왔디<sup>266</sup>)를 간 거라. 그디도 간, 아끈 도간<sup>267</sup>) 한 도간<sup>268</sup>), 아  
끈 모레 한 모레 일언, 거기서 이젠 문딱 본메 놓안 멧 번을 멘들아도 안뉘어.  
계난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허덴 허연. 이젠 독 하나 잡안 희생(犧  
牲) 시견. 겐 옥황드레 등장을 드난 검은 옷 입영 전정록이가 내려완에 아끈  
도간 한 도간에 아끈 불미<sup>269</sup>) 한 불미<sup>270</sup>) 허연 이젠. 일월조상<sup>271</sup>)을 딱 지완  
고운 얼굴 고운 메치<sup>272</sup>) 내노난, 조상(祖上)만 잇덴 뉘여. 뭐 연물<sup>273</sup>)이 있어  
사 헐거난. 이제 굴목이낭<sup>274</sup>) 간 끈언. 첫 통은 골라단.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절에서 불공도 허곡 허난, 절에, 절간 북으로 놓아 두고, 두 번째 통은 쫄라단  
삼천기덕(三千器德) 북을 멘들고, 장기통 쫄란 삼동맥<sup>275</sup>)이 멘들안, 질로 죽은  
몽생이<sup>276</sup>) 덩겘이낭<sup>277</sup>) 그거 가죽 벳견, 나전방<sup>278</sup>)에 눌러들언 나전허고, 부전

260) 베견: 세기어서.

261) 좇젠 허민: 찾으려고 하면.

262) 심방질: 심방일.

263) 동골락허게: 동그랗게.

264) 남천문: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의 놋쇠판에 ‘천지문(天地門)’ 또는 ‘천지일월(天地日月) 등이라 새  
겨져 있음.

265) 모옥상잔: 놋으로 만든 술잔 비슷한 무점구(巫占具).

266) 백몰레왔디: 하얀 모래밭에.

267) 아끈 도간:

268) 한 도간:

269) 아끈 불미: 작은 풀무(治)

270) 한 불미: 큰 풀무(治)

271) 일월조상: 일가내지 일족 수호신

272) 메치: 맵시.

273) 연물: 무악기(대영, 설쇠, 북)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274) 굴목이낭: 느티나무.

275) 삼동맥: 무악기인 장구의 별칭. 삼동막 살장구라고 함.

276) 몽생이: 망아지.

277) 덩겘이낭: 다니고 있어서.

방<sup>279</sup>)에 놀려 들은 부전허고 허연. 왕대 죽대 깎아단, 평이메 나게<sup>280</sup>) 깎아단 체 멘들아 놓고, 장귀 체<sup>281</sup>) 멘들고 허연. 이제 그걸 들런, 이제 절에 들안 온 거라, 아버지가. 다 헨 절에 들안 완. 허명 혈 때에 아버지안티 곱은 거라.

“우리 영영 허연, 우리 7튼 팔즈사주(八字四柱) 현 아이들 잇이난, 그 아이덜 신디 곱아네<sup>282</sup>) 우리 육형제를 무엇우다.”

가이들 들앙 오랜 허연. 게난 가이들 소미(小巫)로 허고 허연

“너네가, 경 말앙, 곱을 허여 보라. 큰 아덜랑 청관디(靑冠帶)를 입영 초감제<sup>283</sup>)를 허여 보고, 셋아덜랑 황관디(黃冠帶)를 입영 초공맞이<sup>284</sup>)를 허고, 족은아덜랑 홍관디(紅冠帶)를 입영 시왕맞이<sup>285</sup>)를 허렌.”

이제 그 너사무 삼형제들은 들안 오난, 소미(小巫)로 허연 두들렌허고<sup>286</sup>), 경 헨 막 곱 행 헤가난, 짚은 궁에 든 어머니가 번뜩허게<sup>287</sup>) 나산 거라. 게난

“짚은 궁에 든 어멍 얇은 궁더레 내놀립서. 얇은 궁에 든 어멍 신가심<sup>288</sup>) 내 울령<sup>289</sup>) 아주 혈씩 나삽서.”

허명 곱을 헤가난, 어멍이 나온 거라. 게난 애기들이 심방이 됩니까 그 갇혔던 사람들이 어멍을 내 준거지. 과거허영 양반으로 헛이민 어멍을 안 내줄건디, 경 허연 어멍을 내주난. 아이고, 어멍 만난.

“어머님아, 어머님 경 보고픈 웨진 땅<sup>290</sup>)으로 갑주긴.”

어멍 들안, 삼형제가 웨하르방네, 임전국 대감 지하 짐전국 부인님신디 ㄴ신 땅을 들앙 간거라. 경 허연 들안 가난, 어멍 아방이 멘발로들 나왕 비세 곱이 운 거 아니.

“아이고, 설운 나 툘아, 그동안 어땜 살이지언디?”

경 허명 막 울언, 그땐 부모 즈식이 일부 훈 잔 허연, 부에가<sup>291</sup>) 난 집에 삼형제가 그디서 연물을 막 두들여 분거라. 그 웨하르방 웨할망도게 중이 즈식<sup>292</sup>)이엔 헨게 문도 안 올라주고, 무신 털이라도 털어지카부덴 초석 쥬 꼴

278) 나전방: 부전에 조운(調韻)

279) 부전방: 장구의 줄을 조일 수 있게 달아 놓은 가죽 조각.

280) 평이메 나게:

281) 장귀 체: 장구 체

282) 곱아네: 말해서.

283) 초감제: 곱을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284) 초공맞이: 초감제를 한 후 다시 한 번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285) 시왕맞이: 맞이곳의 하나로 시왕을 청하여 하는 곱.

286) 두들렌허고: 두드리라고 하고

287) 번뜩허게: 도드라지거나 선명하여 돋보이는 상태이다.

288) 신가심: 깨끗이 씻음.

289) 내울령: 밖으로 나오거나 퍼지게 하다.

290) 웨진 땅: 외가가 있는 땅.

291) 부에가: 화가.

292) 중이 즈식: 중의 자식.

양<sup>293</sup>) 앓게 허고 헤가난 뉘손지들이주 만은 암만 웨하르방 상이라도 섭섭은  
헌거라. 경 헨 그디서 연물<sup>294</sup>)을 와상와상<sup>295</sup>) 두들연. 게난 신칼은, 웨하르방  
네도 마음을 돌린거지. 신칼, 신칼은 웨하르방이 내어준거라.

겐 내어주멍, 뉘 으든 닷단(八十五尺)이여, 일흔 닷단(七十五尺)이여, 이제,  
그 칼이주. 그 훈 닷단(一五尺)이여. 경 허영 저 칼을 내어 쥘. 겐 이제 돌아왔  
언 젓부기삼형제 허고 허연. 어주에 삼녹거리 완. 비즈낭<sup>296</sup>) 텡즈낭<sup>297</sup>) 비고,  
이제 물사옥이 실사옥이 허여단 악기도 멘들고, 이제 마흔으덥 초간주, 서른으  
덥 이간주, 스물으덥 하간주를 이젠 당쫓방을 지어 논거라. 경 헨 지어 놓안.  
아, 잇이난, 옥황에서 젓부기삼형제랑 삼시왕으로 도올랑 앓으렌<sup>298</sup>) 명령이 내  
려온거라. 게난 올라가젠 허난. 아이고, 불쌍헌 어멍, 설운 어멍 내불어뉘 우리  
만 어멍 가코. 이젠 막 탄복이 뉘 거 아니. 어멍이영 만나난 생전이영 살아지  
카부덴 헌디, 올라오렌 허난, 올라가멍, 느진덕정하님이영 너사무삼형제 7라,

“아무 날 아무 시나 뉘민 이 차지혈<sup>299</sup>) 조상이, 즈손 나올거난 그때??지만  
잇이렌.”

해 뉘.

“어머님아, 하도 우리 옛젠<sup>300</sup>) 섭섭헿 생각 많서. 브름 불건 브름 뚜벽청 살  
고, 초스름에랑<sup>301</sup>) 우리들 보고정 허건 베깃디레<sup>302</sup>) 나오란 하늘더레 브리민  
동산 새별 떴이난 그거 브레멍 살고<sup>303</sup>), 어머님이랑 삼하늘<sup>304</sup>)로 좌정을 헿  
서.”

아덜덜은 저승 삼시왕이 뉘고, 어머니는 삼하늘은, 당주방<sup>305</sup>)에 딱 지경 앓  
고, 느진덕정하님 허고.

경 허난 옥황에 도올란 7만히 생각을 허난, 유정싱 아들이 들연 우리 과거  
헌 것도 낙방을 시겨 불엇덴 말이여. 거난 유칩이 강 원수 갇음을 허주겐 헿.  
유칩이 심방을 내왕은에게<sup>306</sup>) 멘들아 불주겐<sup>307</sup>) 헿. 게난 유정싱 아들이 경

293) 꼴양: 깔아서

294) 연물: 무악기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295) 와상와상: 사기 그릇 따위를 아주 세게 부수는 소리.

296) 비즈낭: 비자나무.

297) 텡즈낭: 텡자나무.

298) 도올랑 앓으렌: 신으로 좌정하여서의 뜻.

299) 차지혈: 차지할.

300) 옛젠: 없다고.

301) 초스름에랑: 초 저녁이랑

302) 베깃디레: 바깥으로.

303) 브레멍 살고: 보면서 살고.

304) 삼하늘: 복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당신.

305) 당주방: ‘당주’는 심방집에 무조신(巫祖神:守護神)을 모신 곳.

306) 내왕은에게: 나게 해서.

307) 멘들아 불주겐: 만들어 버리자고

헤부난, 아들이 누이주게, 게난 유정싱뜨님 애기 으섯 설에 땡겘이난<sup>308</sup>), 놀레 땡겘이난 하숫물가에 가네 놀았이난, 간제비<sup>309</sup>) 으섯 개를, 파란 거 으섯 개를 간 채와 분 거라, 신력으로. 채와부난, 베끼디 놀레갈 땡 그거 들렁 막 놀고, 집이 들어 올 때엔 어멍 아방안티 욱 들어지카부덴 집가지에<sup>310</sup>) 곱져불고,,경 허멍 헨게 일곱 설 땡난, 눈이 어둑어 분거라. 십 년에 훈 번씩, 열일곱 땡난 눈 턴, 쓰무일곱 땡난 눈 어둑언, 서른일곱 땡난 또 눈 턴, 마흔일곱 땡난 눈 어둑언, 예순일곱 땡난 눈이 튼거라. 아이, 예순일곱에 눈이 트난, 이젠 그 신이 붙어노난게, 막 어정짱헨 땡긴거주게. 어스럭 더스럭<sup>311</sup>) 땡기단 훈번인<sup>312</sup>) 어덜론가 내려오노렌 허난, 아렛녁에 즈북장제네 집이 보난, 막 우념<sup>313</sup>) 꼴이 꼴아 저서<sup>314</sup>), 우는 소리가 나는 거라. 게난, 아, 이 집인 무사 영 울엿인고 허연. 이젠 들어가난에

“누겐디다가<sup>315</sup>) 왓이넨?”

허난.

“아, 이 집이 막 우는 소리 난 왓우덴.”

허난

“무사 완디엔.”

허난.

“아니, 어떻게 일 잇언?”

“아이고, 곤도 말고 일르지 말고 가렌. 우리 단똥 애기 하나 잇인디. 어제 그 지겘날<sup>316</sup>) 죽언에 울엿젠.”

허난.

“게민, 나 훈번 진맥이나 헤 뵙 가쿠다.”

허난.

“진맥 행 뭘 헐거고?”

허난.

“이녁 명에나 가시냐? 늬이 명에나 가시냐? 진맥이나 행 가쿠다.”

허난. 딱 진맥을 허난, 이걸 삼시왕에 걸렷우다. 대번칙이<sup>317</sup>) 점을 잘 헨 모

---

308) 땡겘이난: 다니고 있으니.

309) 간제비: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처럼 생긴 것이 모두 6개 있음.

310) 집가지에: 지붕의 가장자리. 처마.

311) 어스럭 더스럭: 이리저리 어지럽게 다니는 모양.

312) 훈번인: 한번은

313) 우념: 울음.

314) 꼴아 저서: 깔아졌어.

315) 누겐디다가: 누구인데

316) 그지겘날: 그저께 날

317) 대번칙이: 단박에.

양이라.

“삼시왕에 걸렸우다.”

허난

“거믄 어떻허믄 좋으니?”

허난.

“저 문전더레 상 하나 놓양예, 쫓꼴락헌<sup>318)</sup> 상 낡양<sup>319)</sup>, 향불 피와 놓서. 물  
흔 사발 거려 놓서. 쫄 흔 사발 거려 놓서.”

허여근예. 곶을 말은 없고 그자, 공신강신 그자, 내릴 강신 경 허영. 단지 그  
말만 헤뵤, 쫄 쫄, 뵤뵤 감안 육급 우에 쫄 주명.

“이거 머리말더레<sup>320)</sup> 놓곡양, 나 가불걸랑, 이 애기 살아나건 날 좃양 읍서.”

허난예

“아, 어딜 좃양 가느니?”

허난. 이녁 입으로도 몰르게 나오는 소리가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만 읍서.”

경 곶아뵤 후딱 나와분거라. 아, 나가부난 죽엇던 애기가 게꿈<sup>321)</sup> 보계기<sup>322)</sup>  
물명<sup>323)</sup> 살아나는 거 아니. 겐 살아나난, 이젠

‘아이고, 사름을 좃아사 혈 건디 어디강 좃으콘.’

허난. 십 년 동안을 좃양 뵤겏뵤. 그디서는 십 년 동안을 좃양 뵤기는다, 이  
젠 유정승뵤님애기는 어리궤이 두리궤이<sup>324)</sup>가 뵤분거라<sup>325)</sup>. 막 머리도 허부쨌  
놓고<sup>326)</sup>, 귀신도 아니고 생인도 아니고, 신이 붙어노난 막 헌거주게. 막 뵤기  
단 탁 간 엇더정 잇인디<sup>327)</sup>, 어주에 삼녹거리에 강 엇더진 거라. 경 허난, 자  
기 생각에는 어주에 삼녹거리가 어딘중도 몰랑 간 엇더지난, 삼시왕이

“야, 쨏부기 삼형제야, 저디 왕 엇더진 건 누게고?”

허난예.

“궤만 십셴. 강 들어 보쿠뵤.”

헨 강 보난, 유정승뵤님 애기라. 게난

“이젠, 이래 물명지로 걸려 들이렌.”

---

318) 쫓꼴락헌: 아주 자그마한

319) 상 낡양: 상 놓고.

320) 머리말더레: 머리말예.

321) 게꿈: 거품.

322) 보계기: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모양.

323) 물명: 물면서.

324) 어리궤이 두리궤이: 미친 사람.

325) 뵤분거라: 되어버린 거라.

326) 허부쨌놓고: 머리털이나 옷을 어지럽게 풀어놓다.

327) 엇더정 잇인디: 엇어져서 있는데

명주 허연 영 야게기에<sup>328)</sup> 걸령 그 앞더레 완. 하도 냄새도 나고게 귀신도 아니고 쟁인도 아니고 허난, 향불 피완 머리로 다 헨 부정 서정 게이고, 술 허 영 뿌령 연임허고<sup>329)</sup> 허연. 심방질을 허연 그 집이강 곳을 헤질 건가, 못 혈건 가 허연 딱 산을 지으난, 자격이 없어. 심방 뉘 자격이, 백 근이 안 차는 거라. 거난 이젠, 젓부기삼형제가 무당서 삼천 권을 내어주멍

“이거 가정 강 다 통달(洞達)을 허렌. 이거 가져가근에게 다 통달(洞達)허영 오렌.”

거난, 그거 가정 간 통달(洞達)을 허난 십년이 걸린 거라. 그거 읽는 것이. 일흔일곱 나는 해엔 또, 그거 다 익어지니까. 또 그디 완 앞데허난<sup>330)</sup>, 그땐 물명주로허연 걸려단 향불허연 다 부정(不淨) 가이고<sup>331)</sup>, 서정<sup>332)</sup> 가이고 허연, 장대 내어낸 딱 저울리난 백 근이 차는 거라.

“야, 이젠 뉘켤.”

경 허연 이젠 등으로 금님(金印) 옥님(玉印), 감봉수리 막음 두언에<sup>333)</sup>

“이젠 당당한 심방이 뉘으니까 강 굿헿 오렌.”

겐 너사무삼형젠 소미로 보내고, 경 헨 이젠 즈북장제네 집이 간, 곳을 헤연, 그 애기 이제 살아나난 그디 강 굿 헿 완. 일흔일곱에 그디 강 굿헿 완, 그자 유정싱떡님애기 일흠일곱에 돌아가신거. 이 까지가, 이 일로 해서 다 지금 연 줄연줄 다 줄이 벌고 발이 벌어 심방 뉘는 사람도 뉘고, 그런 본풀이입니다.

---

328) 야게기에: 목예.

329) 연임허고:

330) 앞데허난: 앞드리니.

331) 가이고: 개이고. 씻어내고.

332) 서정: 부정에 대한 조운(調韻)구.

333) 감봉수리 막음 두언에: